

# 26種의 特許가진 『韓國의 에디슨』

## 獨逸서 유혹의 손길...韓電의 洪允和

編輯室

### 인문계 高卒출신 發明家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말단 기능직사원이 초고압선 보수에 필수불가결한 각종 공구류 26점을 발명, 실용신안특허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정규 4년제 공과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조차 알두도 못내면 이분야의 「공구류 발명왕」은 한국전력공사 연수원 훈련교사 洪允和씨(47·서울 강남구 논현동 113-12.)

洪씨의 발명품은 국내유수의 공학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체에서 찬사와 함께 대량생산을 요청해 올 정도로 실용가치가 뛰어난 값진 것들. 그가 지난 77년 발명한 「윤화핀」이나 81년 발명한 「절연전선 피박기」는 세계적 공구업체가 모두 군침을 삼키고 계속 합작생산을 요청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2점의 공구는 8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발명기술전시회」에서 금상과 준금상을 홍씨에게 안겨주기도 했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알려져 서독의 공구기업체는 지금도 편지를 보내 합작생산을 교섭해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독일기업에서는 아예 홍씨에게

접근, 파격적인 대우 조건을 내세우며 「독일에 와서 함께 일하자」고 유혹까지 서슴치 않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발명품을 낸 홍씨지만 처음 그를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사람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발명품을 냈을까?」고 의심할 정도로 홍안의 평범할 인상이다. 마치 시골국민학교의 곱상할 선생님처럼 조심스러운 홍씨, 그는 10여년도 채못되는 기간 동안 무려 13점의 각종 공구를 발명해 냈고 기존 13개공구를 보다 쓸모있게 개량, 실용신안특허를 냈으니까 1년에 3점 가까이 特許품이나 실용신안품을 낸 셈.

이 때문에 동료간에는 물론 회사내에서 홍씨는 「한국 에디슨」으로 통한다. 에디슨이 살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더 유명한 발명가가 됐을법도 한 홍씨다.

그러나 홍씨는 공업학교의 문앞에도 가보지 않았으며 학력이라면 인문계 야간부를 다닌것이 전부다. 부친이 충남광천에서 금광을 경영했으나 6.25동란 발발로 폐광되어 망하는 바람에 거의 학업을 포기할 뻔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고등학교라도 마치라고해서 그나마 다녔기 때문.

그는 천안 계광중학교를 나와 이 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홍씨가 기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때부터. IQ가 130인 그는 그때부터 기계분야에 적응력과 소질이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남달리 일을 빨리 해냈다.

### 전신주타며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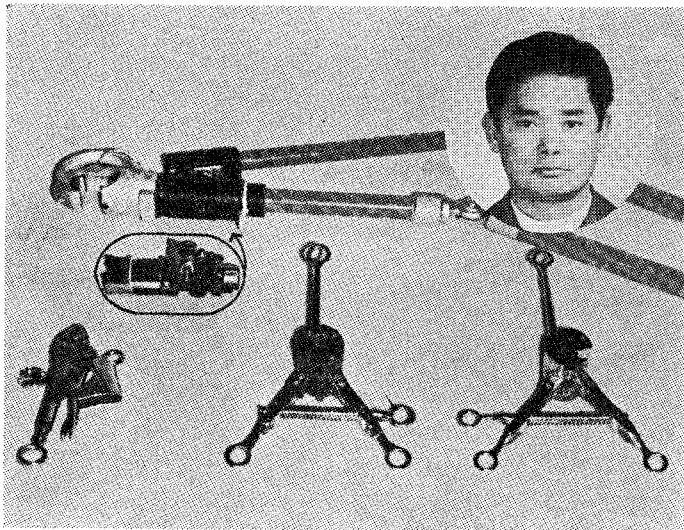
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한국전력」 전신인 南鮮電氣 천안지점에 견습 전기원으로 들어갔다. 공업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사원이 되지도 못했다. 그것이 당장 큰 핸디캡이었지만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대신 남달리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두각을 나타냈다. 곧이어 입대를 하게 됐고 군에서는 통신병으로 일해 계속 기술 계통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제대하자마자 지난 62년 지금의 한국전력에 입사했고 전직을 감안, 일단 견습은 면했다. 그는 이때부터 밤낮으로 전신주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보신 작업을 했다.

홍씨는 현장에서 작업을 치르다 보니 자신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공구개발에 눈을 뚫었다.

『특히 고압선 보수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전을 시킬 수밖에 없고,

○…… 공업관계 교육은 커녕 인문계, 그것도 야간고교를 가까스로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  
 ○……했던 洪允和씨는 외국 유수의 기업체에서 스카웃의 손길을 뺏어올 정도로 세계적인 발……○  
 ○……명가가 됐다. 전기관계 공구로 26종의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를 가진 「한국의 에……○  
 ○……디슨」이란 별명의 이 집념의 發明家는 82년 12월 「제네바」 발명전에 「윤화핀」을 출품,……○  
 ○……金賞과 특별상인 WIPO賞을 석권해서 이미 發明家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는데 이어 금……○  
 ○……년에도 「뉴욕」발명전에서 金賞, 「제네바」발명전에서 金銀賞(준금상)을 받아 그의 명성……○  
 ○……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떨쳤다. ……………○  
 ○…… 洪씨를 찾아 그의 事例를 들어보았다. ……………○  
 ○……………編輯者註……………○



〈洪씨(원내)와 그의 發明品들의 일부〉

이 때문에 종업원 수천명을 가진 생산공장에서 정전으로 기계가 멈춘채 직원들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니 미안하고 안타깝기까지 했었지요.』

洪씨는 전선보수공사에 따른 정전피해를 전국적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엄청나고 수용가의 불편도 말이 아니어서 꼭 적당한 공구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함께 일하던 동료가 전신주 위에서 감전사를 당할때면 더욱욱 안전공구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이때부터 洪씨는 남들이 퇴근하

고 난뒤 밤을 낮삼아 창고에서 발명작업과 씨름을 하다시피 했다.

각종 기계공구를 찾아 친안시내 공구점과 고물상을 폐품수집상처럼 헤매기도 했다. 또 연구하다가 지쳐 툴저 눕기도 했으며 파로로 코피를 쏟은 일도 여러번 있었다.

이러기를 2년여. 입사한지 꼭 13년만이었다. 洪씨는 자신이 만든 공구를 활선 상태에서 실험했고 그 찬란한 성공을 동료들이 축하파티까지 열어주었다. 바로 유명한 윤화핀이 발명된 순간이었다. 곁으

로 보기에 길이 20여cm가량의 자처럼 생긴 밋밋한 공구지만 이것이 몇천볼트의 고압선을 정전 시키지 않고 건어내는데 일찍없었던 꼭 필요한 도구였던 것.

이같은 획기적인 발명소식은 삼시간에 전사내에 전해졌고 본사 표창과 함께 상금도 받았다. 그러나 洪씨는 거기에 만족않고 연구를 계속했고 지난 80년에는 친안에서 서울 연수원 훈련교사로 전보되어 더욱 연구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이어 이듬해는 「절연전선 피막기」를 발명, 일약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제네바 전시회에서 WIPO상도 받았다. 그 외에 그간 洪씨가 받은 상은 그의 공로를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는듯.

사장표창 4번에다 친안시장 표창 상공부장관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3.1문화상 근로상 그리고 정부으로부터 발명유공자란 업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산업포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洪씨는 이에 그치지않고 지금도 연수원 백운관 2층 송배전실습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남 1녀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술과 담배를 전혀 못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W)